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10

October 2006

| 이달의 이슈 |

서울의 관광과 컨벤션은 신성장동력인가?

김철원(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 경제포커스 |

서울도시마케팅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찬동(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 어울리는 서울
도시관광의 미래상

박종구(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 자치구경제이슈 |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김이기(동작구청 생활복지국장)

| 경제동향 |

경기/고용/부동산/금융

| 부록 |

통계표

서울경제

2006.10

차 례

이달의 이슈	3	서울의 관광과 컨벤션은 신성장동력인가? 김철원(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경제포커스	9	서울도시마케팅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찬동(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25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 어울리는 서울 도시관광의 미래상 박종구(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자치구경제이슈	39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김이기(동작구청 생활복지국장)
경제동향	53	요 약
	54	경 기
	66	고 용
	75	부동산
	84	금 융
부록	95	통계표

서울의 관광과 컨벤션은 신성장동력인가?



김철원*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kimcw@khu.ac.kr

서울시는 최근 시정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1세기 문화관광 일류도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문화가치의 동시추구, 선택과 집중의 정책지원, 수요와 공급의 균형개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의 전략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1천2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관광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산업의 선순환의 구조를 창출하고 서울시의 경쟁력이 높은 타 산업 (예, 금융, 의학, BI, IT 등)과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만은 아닌 것 같다. 즉, 산업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관광분야에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클러스터라는 개념은 관련 업체 혹은 업종, 연구기관, 대학 등 특정산업의 생산-유통-소비활동과 관련하여 상호관계가 있는 산업이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면 외부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특화된 노동시장이 형성되며, 특정한 투입요소 및 서비스를 획득하기가 용이하고, 새로운 지식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미국 Texas A&M대 관광학 박사
-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사회문화 전문위원, 한국관광브랜드마케팅 자문위원
- 관광산업 경쟁력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관광산업의 Global Value Chain 연구 등 다수

그동안 관광분야는 산업정책에 있어서 변방의 산업으로 간주되고 부처간의 협력을 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이 가지고 있는 복합성, 가치성과 다양성으로 건설, 교통, 환경, 의학, IT 등 모든 부처가 관광의 영역을 자기네 업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관광개발, IT & 관광, 전시컨벤션, 도시관광, 문화관광, 의료관광, 복지관광 등이 좋은 예이다.

이제 관광분야를 타 산업과 연계하여 이를 정책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용하여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 클러스터화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추진한다면 관광산업의 내부적 체질개선과 함께 관광산업을 전산업의 외부적 효과를 창출해내는 전·후방관련효과가 큰 산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서울시 주무부처가 강력한 정책의지와 창조적 리더쉽을 가지고 첫째, 관광분야를 정교한 정보기술과 연계시켜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e-tourism을 육성·발전시켜 관광정보화 부문 인력을 발굴·육성하는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IT와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실천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관광과 문화가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통합적 개념에서 서로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적 요소를 관광부문에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 문화부에서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복원사업’ 등을 관광부에서 적극 참여하여 ‘관광과 문화’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관광과 컨벤션의 집적화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최근 시정4개년 계획에서 ‘1,2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로 세계 20대 관광도시’와 ‘세계5대 컨벤션 도시’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컨벤션 분야에서는 아직은 정책적 지원이나 구체적 사업이 미흡하나 최근에 제시되었던 서울형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의 구축 방안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컨벤션은 지식집약형,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해당 도시의 마케팅을 촉진하는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레저, 숙박, 유흥, 식음료, 교통, 통신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복합 산업으로 지식,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세계화, 개방화 추세와 함께 컨벤션은 도시의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2000년 이후 53개 도시 컨벤션센터 신축, 확장하였으며, 44개 도시에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며, 유럽의 도시는 물론, 중국의 상하이, 북경 그리고 홍콩 등 아시아 각

국도 경쟁적으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간 첨예한 경쟁 상황 하에서 서울이 컨벤션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서비스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정보, 지식, 인적자원 교류 마켓플레이스로서의 새로운 핵심역량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컨벤션 클러스터를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컨벤션 클러스터의 구축은 서울시를 아시아 컨벤션 허브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 정보와 문화, 디지털 콘텐츠, 인력이 집중하는 컨벤션 중심도시로 육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 창출로 서울시가 지향하는 세계일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컨벤션 DB 및 네트워크 구축, 서울형 컨벤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컨벤션 벤처 complex의 조성,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전시 엑스포의 개발, global talent를 가진 컨벤션 전문 인력의 육성, 컨벤션서비스의 표준화, 국내외 전략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시스템 개발과 서울 컨벤션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시스템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경쟁력에 대한 사업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가지고 컨벤션산업이 서울형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관광분야와 함께 신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조적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창조적 리더쉽(creative leadership)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관광과 컨벤션이 서울을 경제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서울의 삶의 질 향상, 도시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광과 컨벤션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추진 주체들의 능동적이며 창의적 노력과 함께 신명나는 열정이 필요하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창조적 리더쉽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효율성이 이루어 져야 하고, 관련 모든 요소들이 서로 네트워크화되고 클러스터화되어 가치사슬(value chain)이 창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제는 무엇보다도 기존 체계를 혁신(innovation)하고 변화(change)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윌리엄 섹스피어의 작품인 리어왕에서 그는 “이 세상에 이미 모든 것이 존재한다. 단지 새로운 것은 옛날 것을 다시 정렬한 것뿐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혁신과 변화(innovation and change)가 관광과 컨벤션 분야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분야가 서울시

의 신성장동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과감하게 낡은 구조를 혁신하고 바꾸어 고효율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실천적 노력만이 서울의 관광과 컨벤션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경제문화도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DI**